

#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에 표현된 襖의 유형과 조형특성

옥 명 선\* · 박 옥 련<sup>+</sup> · 이 주 영\*\*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sup>+</sup>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 The Typ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n(襖) Represented of Costume in Amitabha of the late Koryo Dynasty

Myung-Sun Ok\* · Ok-Lyun Park<sup>+</sup> · Joo-Young Lee\*\*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sup>+</sup>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 Sung University\*\*

(2004. 8. 3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ype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eon(襖)' represented of costume in Amitabha of the late Koryo Dynas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type of 'Seon' is classified into Standard, Decoration and Application types. According to three types, the types of the standard are subdivided into same color and no pattern and different color and no pattern, the types of the decoration are subdivided into same color and pattern and different color and pattern, And the types of the application are subdivided into wrinkle and beads-decorated wrinkle according to whether decorative beads exist or not. In the Standard type of Seon, same color and no pattern in the Decoration type of Seon, different color and pattern was most often used as its type while, in the applied type of Seon had its main type of beads-decorated wrinkle. Patterns used for Seon were complex in its composition type and filling in its arrangement style. Seon was used mainly for guneui(裙衣) and daeeui(大衣). The color arrangement of Seon, in most cases, used complementary colors, followed by same ones. Regarding costumes aesthetic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Seon, those costumes appeared natural and plain when their Seon was same color and no pattern in type, artificial and plain when their Seon was different color and no pattern in type, natural and brilliant when same color and pattern in type and artificial and brilliant when different color and pattern. In regard to the applied type of Seon, such costumes looked sophisticated and delicate when their Seon was wrinkle in type and dynamic and decorative when beads-decorated wrinkle.

Key words: the late Koryo Dynasty(고려후기), Amitabha(아미타여래도), Seon(襖), types classification(유형분류), formative characteristics(조형특성)

## I. 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襪에 관해 연구한바 있는 前報<sup>1)</sup>에 이어 고려후기 阿彌陀如來圖 복식에 표현된 선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선은 깃[領], 수구(袖口), 도련[裾], 섶[裾] 등 의복의 가장자리에 의복 색과 동일하거나 다른 색의 천을 사용하여 덧댄 것으로서 실용성·장식성과 함께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존하는 고려불화는 대략 150점으로 관경변상도, 아미타여래도,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나한도, 경변상도 등이 있는데 이 중 아미타여래도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고려불화가 내포하고 있는 양식적 특징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와는 다르며, 이웃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회화사에 비유될 수 없을 정도로 고유한 독자성을 갖고 있다.<sup>2)</sup>

아미타여래도는 광명을 비추어 중생들의 번뇌와 어둠을 밝혀주는 아미타여래가 극락정토를 주재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미타여래도는 대부분 고려시대 후기에 제작되었고, 고려시대의 사회·종교·문화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아미타여래도의 복식에 나타난 울동감 있는 선의 흐름, 다채롭고 화려한 문양과 색상 등은 조형면에서 서로 세련되게 조화되어 있어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복식사의 관점에서 아미타여래도를 포함한 고려불화는 당시의 복식문화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만 불화복식이라는 특성상 일반 복식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고려시대의 생활문화가 불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불화복식에 표현된 문양과 색상은 다소 일반복식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아미타여래도에 보이는 다양하고 정교한 문양과 색상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선에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미타여래의 경우 대의의 가장자리에는 모란당초문, 상의의 가장자리에는 채색된 당초문, 군의의 밑단에는 화문, 승각기의 단에는 연화당초문이 주로 그려져 있으므로 선에 표현된 문양과 색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아미타여래도 복식의 조형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고려시대 불화복식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고승희, 임명자, 임영주는 불화복식 전반에 표현된 문양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고찰하였고,<sup>3)</sup> 김부귀

는 화원문, 이미경은 연화문 등 특정 문양에 국한하여 연구하였으며,<sup>4)</sup> 박옥련은 수월관음도의 의상에 나타난 문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sup>5)</sup> 아미타여래도에 관한 연구로는 아미타신상에 관한 연구와 불화에 관한 연구<sup>6)</sup>가 있을 뿐 복식과 관련하여 선의 문양과 색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려시대 일반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과 조형성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려불화 중 아미타여래도를 중심으로 선이 가해진 자료만을 선별하여 문양과 색상조합에 따라 선의 유형을 분류하고, 문양의 구성요소와 배치구도, 사용범위, 배색방법 등을 중심으로 조형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 아미타여래도 복식의 종류

### 1. 아미타여래도의 종류

아미타여래에 대한 신앙은 우리나라의 경우 7세기 후반의 통일신라시대부터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종파를 초월한 화엄종, 법상종, 선종, 법화종 등 거의 모든 종파에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져 아미타신앙에 대한 열의가 한층 고조되었다.<sup>7)</sup>

아미타여래는 아미타경에 의하면 아미타우스(Amitayus: 無量光)와 아미타바(Amitabha: 無量壽)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는 중생을 구제하는데 시간적·공간적으로 무한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아미타바, 즉 무량수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은 다음에 태어날 행복한 세계인 佛國土 즉, 淨土가 수없이 많다고 하는데, 아미타여래는 그 수많은 정토 가운데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중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西方極樂淨土를 주재하는 부처님이다.<sup>8)</sup>

아미타여래도는 이러한 정토삼부경과 그 신앙을 바탕으로 제작된 그림을 일컫는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종파를 초월한 통불교적으로 많이 그려졌고 형식 또한 다양하다. 아미타여래도는 크게 說法圖와 來迎圖로 구분된다.

설법도는 서방극락세계의 주존인 아미타여래가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 須彌壇 위에 놓인 연꽃대좌 위에 정면을 향하여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림의 형식은 아미타여래 단독의 '독존도'와 좌·우에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

타삼존도', 그리고 여덟의 보살을 협시로 하는 '아미타팔대보살도' 등이 있다. 팔대보살은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금강장보살, 제장대보살, 허공장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이며 허공장보살 대신에 세지보살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이 그림은 아미타여래에 여덟보살이 보태졌다하여 아미타구존도라 부르기도 한다.

내영도는 아미타여래를 신봉하고 공덕을 쌓으면 최상의 세계인 극락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하며, 아미타여래가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왕생자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觀無量壽經』의 본품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의 형식은 아미타여래 단독의 독존내영도, 아미타삼존내영도, 아미타팔대보살내영도 등이 있으며 설법도 형식과는 달리 각 존상이 약간 오른쪽으로 몸을 돌린, 즉 측면을 향하는 입상의 자세이며 방향은 모두 화면을 향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 2. 아미타여래도 복식의 종류

불화복식은 불상의 의복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袈裟로 통칭되기도 한다. 겉옷에는 三衣인 大衣와 上衣, 그리고 下衣 등이 있고,<sup>9)</sup> 겉옷 속에 입는 옷에는 僧脚崎와 裙衣가 있다.<sup>10)</sup>

大衣는 僧伽梨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 Saṃghāṭī의 음역이다. 이는 가장 겉에 입는 옷으로서, 三衣 중에서 가장 큰 것이므로 대의라 한다. 설법하거나 걸식할 때에 입는 가사로, 후세에는 큰 법회가 있을 때에 입는 裝束으로 왕궁이나 마을로 나들이 갈 때 입던 외출복으로 착용되었다.<sup>11)</sup>

上衣는 鬱多羅僧이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 Uttarāsaṅga의 음역이다. 이는 優多羅僧, 郁多羅僧伽라고 부르기도 하며, 上衣 또는 上着衣로 번역된다. 평상시 맨 위에 입는 옷으로 왼쪽 어깨를 덮었기 때문에 覆左肩衣라고도 한다.

下衣는 安陀會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 Antaravāsa의 음역이다. 이는 安多婆娑, 安多衛, 安陀羅跋薩 등이라 부르기도 하며, 裏衣, 下衣, 內衣로 번역된다. 승원 내에서 머물거나 일하는 시간에 착용되었다.

僧脚崎는 산스크리트어 Samkākṣikā의 음역이다. 이는 僧祇支, 掩腋衣, 覆膊衣 등이라 부르기도 한다. 왼쪽 어깨에 걸쳐 왼팔을 덮고, 한 자락을 비스듬하게 내려뜨려 오른쪽 겨드랑이를 감는 옷으로 가사

밑에 입는다.

裙衣는 산스크리트어 Nivāsana의 음역이다. 이는 泥洹僧, 涅槃僧, 泥縛些那 등이라 부르기도 하며, 下裙 또는 內衣로 번역된다. 승려의 허리에 둘러 입는 것으로 지금의 치마처럼 하반신에 걸쳐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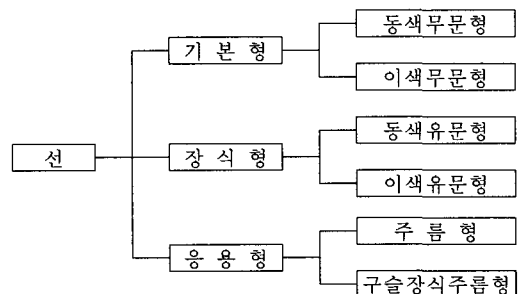
## Ⅲ. 유형분류와 유형분포

현재 알려져 있는 고려후기의 아미타여래도는 총 47점이며, 색상과 문양이 명확한 자료는 42점이다. 42점의 圖像 중에는 총 186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중 선이 표현된 복식을 입고 있는 인물은 84명이며, 이들이 입고 있는 복식 자료 183점을 선별하여 분석·고찰하였다.

### 1. 유형분류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조선시대 선에 관하여 연구한 전보<sup>12)</sup>에 준해 기본형, 장식형, 응용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기본형은 선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바탕 천과 선의 색상조합에 따라 동색무문형과 이색무문형으로 분류된다. 장식형은 선에 장식을 가한 것으로 바탕 천과 선의 색상조합에 따라 동색유문형과 이색유문형으로 분류된다. 조선시대에는 유물을 통해 상침, 선치기, 금박, 자수 등 여러 가지 장식기법을 볼 수 있었으나, 불화는 회화자료라는 특성상 구체적인 장식기법을 고찰하기 어렵다. 응용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선의 느낌이 나도록 주름을 가한 경우로 구슬장식의 유무에 따라 구슬장식이 없는 것은 주름형으로, 있는 것은 구슬장식주름형으로 분류된다.

고려후기 선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선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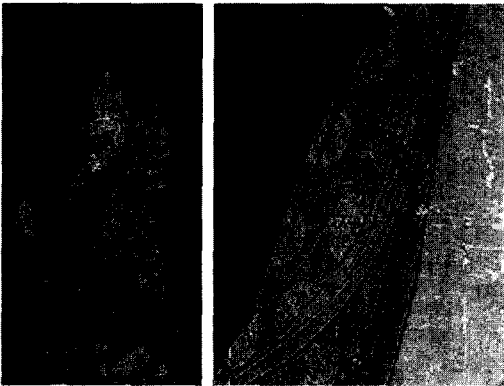
<그림 1>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襟의 유형분류

1) 기본형

(1) 동색무문형

동색무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하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는 유형이다(그림 2). 바탕천에는 문양이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선에는 문양이 없는 점이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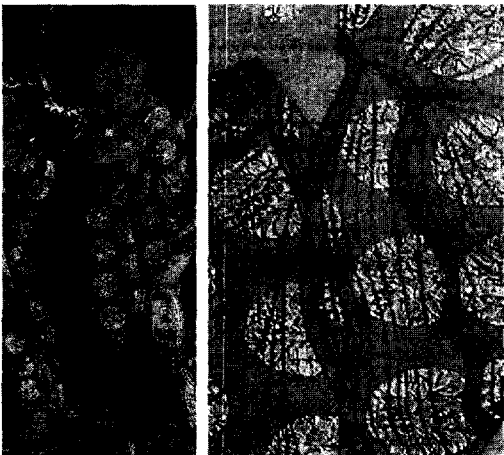
이 유형은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으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금니에 의한 화려한 미는 연출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고 소박하다.



<그림 2> 동색무문형(高麗時代의 佛畫, p. 70)

(2) 이색무문형

이색무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다르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는 유형이다(그림 3). 이 유형 역시 바탕천에는 문양이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



<그림 3> 이색무문형(高麗時代의 佛畫, p. 86)

되어 있으나 선에는 문양이 없는 점이 독특하다.

이 유형은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다소 딱딱하고 선명하지만 금니에 의한 화려한 미는 연출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이미지가 인위적이고 소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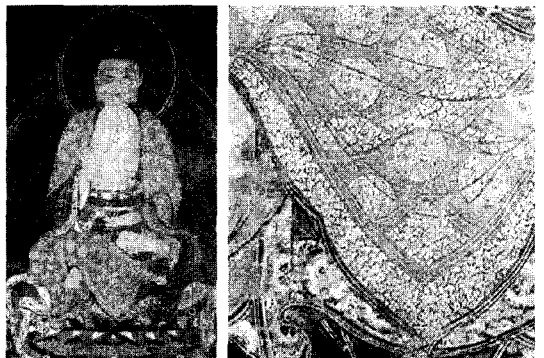
2) 장식형

(1) 동색유문형

동색유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하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유형이다(그림 4, 5). 문양은 대부분 금니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바탕천의 문양과 동일하거나(그림 4)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그림 5).



<그림 4> 동색유문형(高麗時代의 佛畫, p. 88)



<그림 5> 동색유문형(高麗時代의 佛畫, p. 27)

이 유형은 동색무문형과 같이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으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고 유연하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고 화려하다.

한편, 회화상으로 본 동색유문형은 실제 의복에 서는 제천을 꺾어 넣은 제물선 위에 장식을 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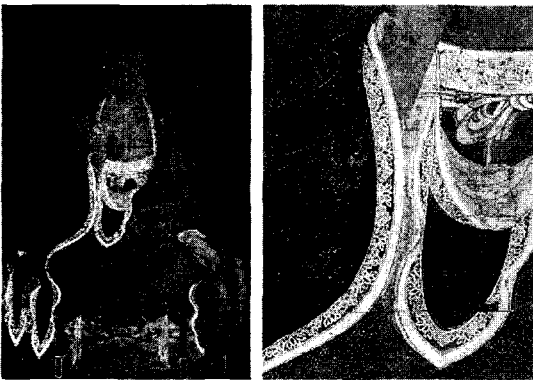
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식방법은 도안된 문양에 색사와 금사로 수를 놓거나 금니로 그리거나 안료로 채색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 (2) 이색유문형

이색유문형은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다르고 선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유형이다(그림 6). 문양은 바탕천의 문양과 달리 별도로 묘사되어 있으며, 대부분 금니나 채색으로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유형은 이색유문형과 같이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의복의 가장자리가 다소 딱딱하고 선명하며, 전체적인 이미지가 인위적이고 화려하다.

한편, 회화상으로 본 이색유문형은 실제 의복에서는 다른 천을 덧댄 이색선 위에 장식을 가한 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장식방법은 동색유문형에서와 같이 도안된 문양에 색사와 금사로 수를 놓거나 금니로 그리거나 안료로 채색하기도 하고, 이 외에 별도로 제작된 화려한 직금단을 그대로 선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6〉 이색유문형(高麗時代의 佛畫, p. 33)

### 3) 응용형

#### (1) 주름형

주름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주름잡힌 별도의 천을 덧대어 선의 효과를 낸 유형이다(그림 7).

이 유형은 주름의 입체적인 볼륨감에 의해 의복의 가장자리가 풍성하고 유연하며, 주름간격이 동일하게 잡혀져 있어 전체적인 이미지가 정교하고 섬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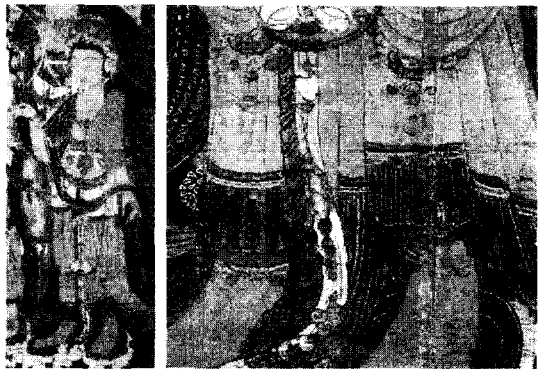


〈그림 7〉 주름형(高麗時代의 佛畫, p. 55)

#### (2) 구슬장식주름형

구슬장식주름형은 의복의 가장자리에 주름잡힌 별도의 천을 덧대어 선의 효과를 낸 다음 주름 위에 구슬을 달아 장식한 유형이다(그림 8).

이 유형 역시 의복의 가장자리가 풍성하고 유연하며, 주름의 입체적인 볼륨감에 달랑거리는 구슬을 더함으로써 전체적인 이미지가 동적이고 장식적이다.



〈그림 8〉 구슬장식주름형(高麗時代의 佛畫, p.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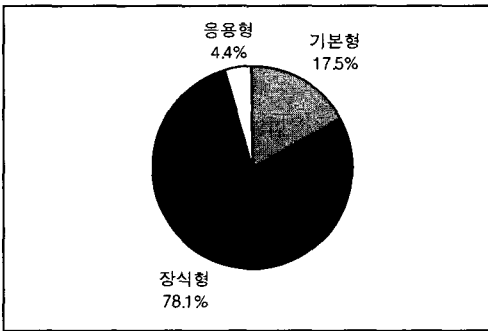
## 2. 유형분포

선이 가해진 복식자료 총 183점을 중심으로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9>와 같다.

<표 1>과 <그림 9>를 통해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83점 중 기본형이 32점, 장식형이 143점, 응용형이 8점으로 장식형이 78.1%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기본형이 17.5%, 응용형은 4.4%로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유형별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기본형은

〈표 1〉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형		유물수(%)		
		설법도	내영도	유형별 소계
기본형	동색무문형	4	21	25(13,7)
	이색무문형	0	7	
장식형	동색유문형	21	16	37(20,2)
	이색유문형	67	39	
응용형	주름형	1	0	1( 0,6)
	구슬장식주름형	2	5	
종류별 소계		95(51,9)	88(48,1)	183(100)



〈그림 9〉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별 출현율

총 32점 중 동색무문형이 25점, 이색무문형이 7점으로 동색무문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장식형은 총 143점 중 이색유문형이 106점, 동색유문형이 37점으로 이색유문형이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응용형은 총 8점 중 구슬장식주름형이 7점, 주름형이 1점으로 구슬장식주름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아미타여래도 복식의 선은 기본형의 경우 동색무문형이, 장식형의 경우 이색유문형이, 응용형의 경우 구슬장식주름형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바탕천과 다른 색상의 선에 금니와 다채로운 색상으로 문양을 시문하거나 주름에 구슬장식을 더한 점으로 보아 다소 시각적 효과가 큰 유형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와 넓은 소매 끝에 더해져 마치 온 몸에 끈을 두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귀족적이고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종교적인 엄숙함마저 느끼게 한다.

한편, 〈표 1〉을 통해 아미타여래도의 종류별 선의 유형분포를 살펴보면, 총 183점 중 앉아 있는 모습인 설법도가 95점, 서있는 모습인 내영도가 88점으로 각각 51.9%, 48.1%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설법도는 이색유문형과 동색유문형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내영도는 이색유문형과 동색유문형이 많이 나타나지만 동색무문형과 이색무문형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설법도의 경우 바탕천과 선에 모두 문양이 표현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묘사되어 있는 반면, 내영도의 경우는 바탕천과 선에 문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설법도의 경우보다 화려함이 감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조형특성 분석

##### 1. 문양의 유형

고려불화에 표현된 문양의 유형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를 보면, 고승희<sup>13)</sup>와 임명자<sup>14)</sup>는 식물문양, 동물문양, 자연문양, 기하문양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임영주<sup>15)</sup>는 문양의 종류만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아미타여래도의 복식에 표현된 문양을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기하문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 1) 구성요소별

구성요소에 따른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3〉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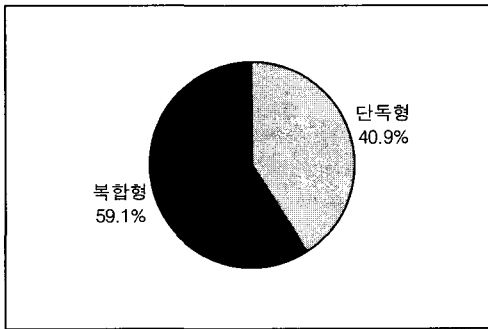
〈표 3〉과 〈그림 10〉에 의하면 구성요소에 따른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단독형과 복합형으로 분류되고, 단독형은 식물문, 동물문, 기하문 등으로 분류되고, 복합형은 식물문과 식물문, 식물문과 기하문, 동물문과 자연문, 동물문과 자연문과 기하문 등이 조합된 것으로 분류

<표 2> 고려불화에 표현된 문양의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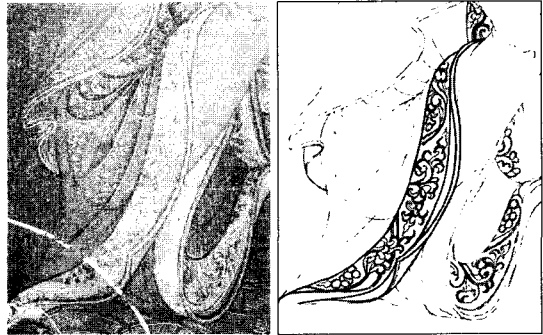
연구자	분류	문양의 종류
고승희(2000)	식물문양	당초문, 연화문, 연화당초문, 보상화문, 보상당초문, 모란문, 모란당초문, 국화문, 국화당초문, 초화문
	동물문양	봉황문, 학문, 어문
	자연문양	운문, 화문, 파도문
	기하문양	귀갑문, 소슬금문, 연주문, 칠보문, 연능문, 점문
임명자(1984)	동·식물문	운봉문, 보상화문, 보상당초문, 모란당초문, 연화당초문, 국화당초문, 초화문, 당초문
	자연문	운문, 파도문
	기하문	귀갑문, 소슬금문, 연주문, 칠보문, 연능문
임영주(1981)	분류하지않음	연화문, 연당초문, 보상화문, 보상당초문, 국화문, 국당초문, 모란당초문, 초화문, 당초문, 운문, 운당초문, 운봉문, 극락조문, 칠보문, 연주문, 소슬금문, 연능문, 귀갑문, 공포문

<표 3> 구성요소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분류	구성요소	문양의 종류(유물수)	유물수(%)
단독형	식물문	당초문(41), 초화문(4), 모란문(2), 국화문(2), 연화문(2), 화문(1)	52(36.7)
	동물문	어문(4)	4( 2.8)
	기하문	연주문(2)	2( 1.4)
복합형	식물문+식물문	모란당초문(26), 연화당초문(19), 보상당초문(15)	60(42.2)
	식물문+기하문	연화문+연주문(22)	22(15.5)
	동물문+자연문	봉문+운문(1)	1( 0.7)
	동물문+자연문+기하문	봉문+운문+귀갑문(1)	1( 0.7)
소 계			14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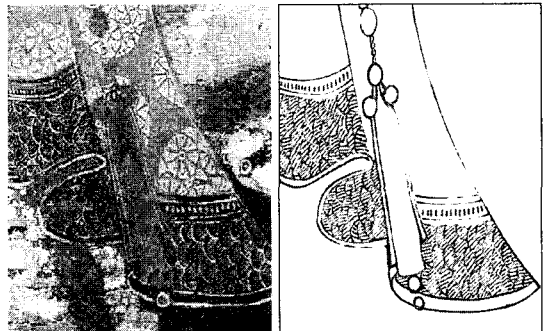
<그림 10> 구성요소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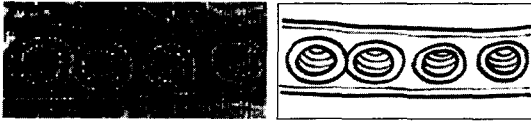
<그림 11> 단독형(식물문; 高麗時代의 佛畫, p. 41)

된다. 문양이 시문된 복식자료 142점(16) 중 단독형은 58점으로 40.9%, 복합형은 84점으로 59.1%로 복합형이 다소 많이 나타난다.

단독형의 경우 당초문, 초화문, 모란문, 국화문, 연화문 등의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당초문이(그림 11)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 동물문의 경우 어문이(그림 12), 기하문의 경우 연주문이(그림 13) 단독문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 당초문은 아미타여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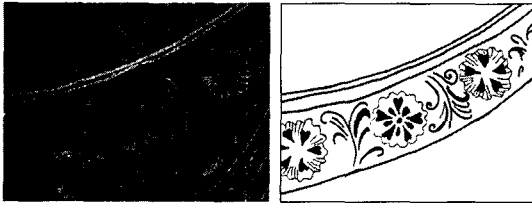


<그림 12> 단독형(동물문; 高麗時代의 佛畫,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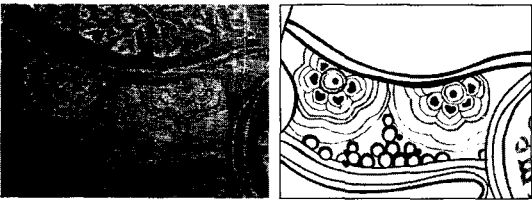


〈그림 13〉 단독형(기하문; 高麗時代의 佛畫, p. 351)

상의 가장자리에 주로 사용되었고, 당초문 외에 다른 문양들은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그리고 지장보살의 상의나 승각기, 군의의 선에 사용되었다.



〈그림 14〉 복합형(식물문+식물문; 高麗時代의 佛畫, p. 348)



〈그림 15〉 복합형(식물문+기하문; 高麗時代의 佛畫, p. 348)

복합형의 경우 식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되거나, 식물문과 기하문이 조합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그림 14, 15). 먼저 식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된 경우 주로 사용된 문양은 당초문에 화문이 더해졌으며, 화문은 모란, 연화, 보상화 등이 주류를 이룬다. 모란당초문은 아미타여래의 대의 가장자리에 사용되었고, 연화당초문은 아미타여래의 승각기 단에, 보상당초문은 관음보살과 세지보살, 그리고 금강장보살의 군의 밑단에 주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식물문과 기하문이 조합된 경우 주로 연화문에 연주문이 더해졌으며, 이는 아미타여래의 군의 밑단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 외에 동물문과 자연문, 동물문과 자연문과 기하문의 조합은 극히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상에서 당초문과 연주문은 주로 보조문양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초문이 덩굴곡선의 형태로 문양과 문양을 점증적으로 접속시켜 나가는 성질이 있고, 연주문 역시 등글게 연속적으로 그려지는 형태로 문양과 문양을 연결시키거나 문양 사이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메워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주문양에 당초문과 연주문이 더해짐으로써 곡선적인 부드러움

과 함께 생동적인 율동감이 느껴진다.

한편,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사회가 불교를 숭상하는 왕실과 귀족계급의 호응을 받아 번성한 까닭에 화려한 귀족적 취향이 불화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식물문 중에서도 불교를 상징하는 연화문, 보상화문 등이 당초문과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미술에 주로 사용된 연화문, 보상화문, 당초문 등은 인도, 동아시아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도 많이 애용되었다. 불교에서 연화는 대자대비를 상징하고,<sup>17)</sup> 보상화는 연꽃의 변형으로 이루어진 상상의 꽃으로 불교적 의미를 지닌 문양이며,<sup>18)</sup> 당초문은 중국 당나라 시대에 널리 사용되면서 '唐代風'의 덩굴문이라는 의미로 고려시대에는 불교미술의 계승과 귀족적 취향이 반영되어 연화, 보상화, 모란 등과 같이 사용되어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나타난다.<sup>19)</sup> 이 외에 모란문은 모란꽃을 도안화시킨 보상화문이나, 당초문과 결합된 모란당초문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0)</sup>

## 2) 배치구도별

문양의 배치구도에 대하여 조규화<sup>21)</sup> 금기속<sup>22)</sup>은 充填構圖, 散點構圖, 繪畫風構圖로 분류하였고, 김재임<sup>23)</sup> 이선화·권영숙<sup>24)</sup> 이주영외 3인<sup>25)</sup>은 조규화, 금기속의 견해를 참고하여 충전형, 산점형, 회화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 준해 충전형, 산점형, 회화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충전형은 대상 전체 면에 문양을 가득 채우는 배치구도로서 대부분 연속문으로 표현되는 구도이고, 산점형은 장식하려는 표면을 같은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그 안에 단위문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배치하는 구도이며, 회화형은 사물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서 그 자체를 장식문양으로 사용하는 구도이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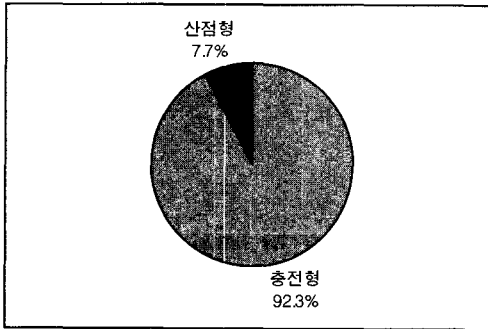
배치구도에 따른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충전형과 산점형으로 나타나고 회화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충전형은 문양의 형태에 따라 연결형과 원형, 방형으로 분류된다. 유형별 출현율은 <표 4>와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6>과 같다.



〈표 4〉 배치구도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유형		유물수(%)	
총전형	연결형	94(65.7)	132(92.3)
	원형	37(25.9)	
	방형	1( 0.7)	
산점형		11( 7.7)	11( 7.7)
소 계		143(100)	



〈그림 16〉 배치구도에 따른 선의 유형별 출현율

〈표 4〉와 〈그림 16〉에 의하면 문양이 시문된 복식자료 143점<sup>27)</sup> 중 총전형이 132점, 산점형이 11점으로 총전형이 92.3%로 현저하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산점형은 7.7%로 극히 낮은 비중을 나타낸다. 총전형의 세부 유형분포를 보면, 총 132점 중 연결형이 94점, 원형이 37점, 방형이 1점으로 연결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아미타여래도 복식의 선에 표현된 문양은 대부분이 총전형으로 되어 있다. 문양이 총전되는 방법은 모란문과 당초문이 결합되어 가득 메워진 경우도 있고(그림 17), 원형의 주된 문양이 시문된 다음 빈 공간을 연주문으로 메우는 경우도 있고(그림 18), 방형의 주된 문양이 시문된 다음 작은 화문과 연주문으로 메워진 경우도 있다(그림 19). 그런데 〈그림 18, 19〉는 주문양이 뚜렷하게 부각되

므로 산점형식이 다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구도는 총전형으로 되어 있다. 총전형은 문양이 복합으로 조합되어 면을 가득 채움으로써 충만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산점형의 경우 아미타여래도 복식에는 주로 단위문이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긴마름모형으로 구성된 초화문이 백색의 선 위에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그림 20). 산점형은 총전형에 비해 여백의미를 느끼게 하며 산뜻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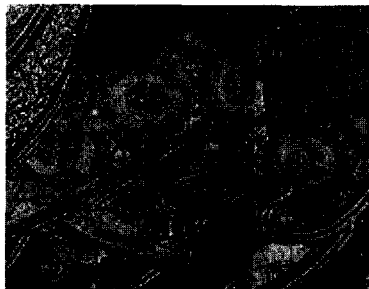
〈그림 20〉 산점형(高麗時代의 佛畫, p. 35)

## 2. 사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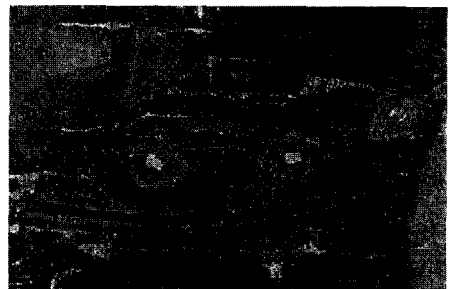
선이 사용된 아미타여래도 복식의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5〉와 같고,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별 출현율을 도식화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17〉 총전형(연결형; 高麗時代의 佛畫, p.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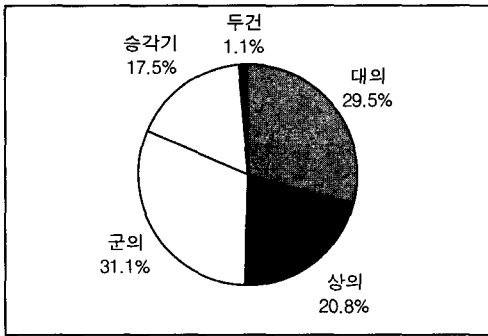
〈그림 18〉 총전형(원형; 高麗時代의 佛畫, p. 27)



〈그림 19〉 총전형(방형; 高麗時代의 佛畫, p. 68)

<표 5> 선이 사용된 복식종류의 유형별 출현율

유형	복식종류	유물수(%)					유형별 소계
		대의	상의	군의	승각기	두건	
기본형	동색무문형	12	7	6	0	0	25(13.7)
	이색무문형	5	1	1	0	0	7(3.8)
장식형	동색유문형	25	2	1	7	2	37(20.2)
	이색유문형	12	28	41	25	0	106(57.9)
응용형	주름형	0	0	1	0	0	1(0.6)
	구슬장식주름형	0	0	7	0	0	7(3.8)
복식종류별 소계		54(29.5)	38(20.8)	57(31.1)	32(17.5)	2(1.1)	183(100)



<그림 21>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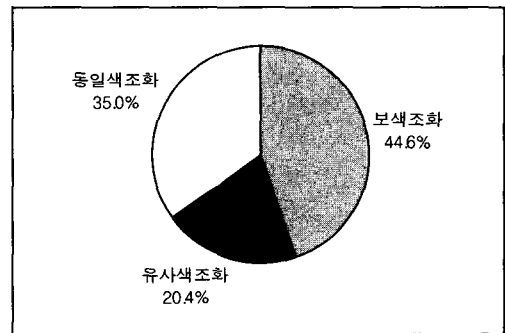
<표 5>를 통해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사용된 선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의에는 동색유문형과 이색유문형, 동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상의와 군의, 승각기에는 이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두건에는 동색유문형만 사용되었다. 군의에는 이색유문형이 현저하게 많이 사용된 가운데 모든 유형의 선이 사용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그림 21>에 의하면 선이 사용된 복식의 종류별 출현순위는 군의>대의>상의>승각기>두건 등이다. 이처럼 선은 군의의 밑단이나 대의의 가장자리 등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사용됨으로써 의복 전체에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고 생각된다.

### 3. 배색방법

배색방법은 편의상 보색조화, 유사색조화, 동일색조화 등으로 구분한다.

바탕천과 선의 배색방법을 알 수 있는 아미타여래도 복식자료 총 177점을 선별하여 유형별 출현율을 정리하면 <표 6>과 같고,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

<표 6>과 <그림 22>를 통해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총 177점 중 보색조화가 79점, 동일색조화가 62점, 유

<표 6> 배색방법의 유형별 출현율

배색방법	유물수(%)	배색								
		바탕천	선	유물수	바탕천	선	유물수	바탕천	선	유물수
보색조화	79(44.6)	녹청	백+황	33	군청	백+황	9	홍	군청	8
		녹청	백+홍	7	홍	녹청	4	군청	황	3
		홍	백+황	3	분홍	녹청	2	자주	군청	2
		녹청	황	2	백	녹청	2	군청	홍	1
		백	군청	1	황	홍	1	홍	청	1
유사색조화	36(20.4)	홍	자주	13	녹청	군청	11	분홍	자주	6
		홍	황	2	황	자주	2	황	홍	1
		녹청	청	1						
동일색조화	62(35.0)	홍		38	녹청		13	자주		6
		군청		4	주홍		1			
소 계										177(100)

사색조화가 36점의 순으로 보색조화와 동일색조화의 비중이 각각 44.6%, 35.0%로 나타나고 있어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방법은 보색조화이고 그 다음이 동일색조화임을 알 수 있다.

배색방법에 따른 색상조화를 보면, 보색조화는 녹색과 백·황, 군청과 백·황, 홍과 군청, 녹색과 백·홍, 홍과 녹색, 군청과 황, 홍과 백·황 등의 배색으로 되어 있어 주로 진한 바탕색과 대조를 보이는 백색과 금니의 황색이 사용되었다. 즉 보색조화는 바탕천에서 선의 색상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딱딱하고 인위적인 이미지를 연출함으로써 강한 느낌을 준다.

유사색조화는 홍과 자주, 녹색과 군청, 분홍과 자주, 홍과 황, 황과 자주 등의 배색으로 주로 바탕색과 서로 융화되어 차분하고 통일된 느낌을 준다.

동일색조화는 주로 동색유문형과 동색무문형에만 사용되는데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동시에 바탕천과 선의 색상이 동일함으로 다소 단조로우나 안정된 느낌을 준다.

## V. 결론

고려후기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분류하고 문양의 구성요소와 배치구도, 사용법위, 배색방법 등을 중심으로 조형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려후기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선은 기본형, 장식형, 응용형으로 분류된다. 기본형은 선에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바탕 천과 선의 색상조합에 따라 동색무문형과 이색무문형으로 분류된다. 장식형은 선에 장식을 가한 것으로 바탕 천과 선의 색상조합에 따라 동색유문형과 이색유문형으로 분류된다. 응용형은 구슬장식의 유무에 따라 구슬장식이 없는 것은 주름형으로, 있는 것은 구슬장식주름형으로 분류된다.

2. 선의 유형별 출현율을 보면, 기본형의 경우 동색무문형이, 장식형의 경우 이색유문형이, 응용형의 경우 구슬장식주름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바탕천과 다른 색상의 선에 금니와 다채로운 색상으로 문양을 시문하거나 주름에 구슬을 장식하는 등 시각적 효과가 큰 유형이 선호되었다. 이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선은 의복의 가장자리와 넓은 소매 끝에 가해져 끈을 두른 듯한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귀

족적이고 화려한 이미지와 함께 종교적인 엄숙함을 느끼게 한다.

3.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에 사용된 문양은 구성요소에 따라 단독형(40.9%)과 복합형(59.1%)으로 분류된다. 단독형의 경우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고, 그 중 당초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복합형의 경우 식물문과 식물문이 조합되거나, 식물문과 기하문이 조합된 것이 주류를 이룬다. 이처럼 단독형과 복합형 모두에서 식물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고려사회가 불교를 숭상하는 왕실과 귀족계급의 호응을 받아 번성한 까닭에 화려한 귀족적 취향이 불화복식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식물문 중에서도 불교를 상징하는 연화문, 보상화문 등이 당초문과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4. 선에 사용된 문양은 배치구도에 따라 충전형(92.3%)과 산점형(7.7%)으로 분류되고, 충전형은 문양의 형태에 따라 연결형과 원형, 방형으로 분류된다. 아미타여래도 복식에 표현된 선의 대부분은 충전형으로 되어 있고, 그 중 연결형이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5. 선의 사용범위를 보면, 군의(31.1%)와 대의(29.5%)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대의에는 동색유문형과 이색유문형, 동색무문형이 주로 사용되었고, 상의에는 이색유문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선은 군의의 밑단이나 대의의 가장자리 등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사용됨으로써 의복 전체에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6. 선의 배색방법을 보면, 보색조화(44.6%)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 동일색조화(35.0%)가 다소 많이 사용되었다. 즉 보색조화는 바탕천에서 선의 색상을 선명하게 부각시켜 딱딱하고 인위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동일색조화는 바탕천과 선의 경계가 없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7. 선이 가해진 의복의 미적 특성을 보면, 동색무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자연스럽고 소박한 미를 표현하고, 이색무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인위적이고 소박한 미를 표현하고, 동색유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자연스럽고 화려한 미를 표현하며, 이색유문형이 들어간 의복은 인위적이고 화려한 미를 표현한다. 주름형이 들어간 의복은 정교하고 섬세한 미를 표현하고, 구슬장식주름형이 들어간 의복은 동적이고 장식적인 미를 표현한다.

본 연구는 고려시대 불화라는 특성상 직접 복식의 구성법과 장식기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성

을 가진다.

## 참고문헌

- 1) 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3).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襪의 유형과 조형특성. 복식, 53(8), pp. 39-52.
- 2) 정우택 (1994). 고려시대의 불교회화, 한국불교미술대전②. 서울: 한국색채문화사, p. 230.
- 3) 고승희 (2000). 高麗佛畫의 紋樣 研究. 동국대 문화예술타학원 석사학위논문.  
林明子 (1984). 高麗佛畫에 나타나는 衣裳紋樣 研究.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영주 (1981). 高麗佛畫의 紋樣, 韓國의 美 7 -高麗佛畫-. 서울: 中央日報社, pp. 217-229.
- 4) 김부귀 (2000). 高麗佛畫 法衣文樣 研究 - 花團文을 중심으로.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경 (2001). 고려불화에 나타난 연화문양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박옥련 (1988). 高麗佛敎美術에 現われた 文樣의 研究. 日本: de arte. 九州藝術學會, 4, pp. 35-48.  
박옥련 (1992). 高麗時代 水月觀音圖의 衣裳에 나타난 文樣 研究. 한국의류학회지, 16(1), pp. 111-122.
- 6) 金奎源 (1997). 高麗佛畫에 나타난 阿彌陀信仰에 관한 研究. 東國大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金淳美 (1997). 고려 아미타불화의 관음보살도 고찰. 東國大 佛敎大學院 석사학위논문.  
安靜子 (1990). 高麗阿彌陀佛畫의 造形性 연구. 東亞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鄭于澤 (1988). 高麗時代 阿彌陀三尊圖. 泉屋博古館紀要 5. 京都: 泉屋博古館.  
유마리 (1981). 高麗 阿彌陀佛畫의 研究. -佛敎美術 6-. 東國大學校 博物館, pp. 26-52.  
林 進 (1988). 高麗時代의 阿彌陀三尊圖. 泉屋博古館紀要, 5. 京都: 泉屋博古館.  
井手誠之輔 (1995). 高麗의 阿彌陀畫像と 普賢行願品. 美術研究 362號.
- 7) 文明大 (1991). 高麗佛畫. 서울: 悅話堂, pp. 29-32.
- 8) 정우택 (1997). 高麗佛畫의 圖像과 그 아름다움. -高麗時代의 佛畫- 해설편. 서울: 시공사, p. 23.
- 9) 崔完秀 (1973). 간다라 佛衣攷. -佛敎美術 1-. 東國大學校 博物館, pp. 84-116.
- 10) 고승희 (2000). 앞의 논문, pp. 80-82.
- 11) 문명대(1999).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국언론자료간행회, p. 142.
- 12) 조선시대 선의 유형은 크게 기본형, 장식형, 응용형으로 분류하였다. 기본형은 구성법에 따라 제물 선과 이색선으로 분류하고, 장식형은 장식기법에 따라 상침형, 선치기형, 금박형, 자수형 등으로 분류하고, 응용형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파이핑형, 獸毛형, 브레이드형, 금속제형 등으로 분류하였다(옥명선, 박옥련, 이주영 (2003). 앞의 논문, pp. 40-41).
- 13) 고승희 (2000). 앞의 논문, p. 7.
- 14) 林明子 (1984). 앞의 논문, pp. 22-23.
- 15) 임영주 (1981). 앞의 책, pp. 217-229.
- 16) 총 183점 중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동색무문형과 이색무문형, 주름형, 구슬장식주름형 등의 40점과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는 1점은 제외하였다.
- 17) 박옥련 (2000). 한국전통복식문양사. 서울: 형설출판사, p. 50.  
林永周 (1991). 傳統紋樣資料集. 서울: 미진사, p. 40.
- 18) 林良一 (1978). 佛敎美術における 裝飾文樣(12) - 宝華①. 佛敎藝術 121호, 佛敎藝術學會, pp. 70-85.  
박옥련 (2000). 앞의 책, p. 60.
- 19) 林良一 (1977). 佛敎美術における 裝飾文樣(10) - パルメツト③. 佛敎藝術, 114호, 佛敎藝術學會, pp. 66-94.  
고승희 (2000). 앞의 논문, pp. 8-9.
- 20) 林永周 (1991). 앞의 책, p. 46.
- 21) 曹圭和 (1992). 服飾美學. 서울: 수학사, pp. 155-161.
- 22) 琴基淑 (1998). 朝鮮服飾美術. 서울: 열화당, pp. 104-112.
- 23) 김재익 (1999). 한·중·일 모란문양의 비교 연구 - 질적·양적 비교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99.
- 24) 이선화, 권영숙 (2002). Baroque적분에 나타난 floral 패턴의 조형성. 복식, 52(7), pp. 6-7.
- 25) 이주영, 장현주, 도주연, 장경아 (2004). 보문(寶紋)의 유형과 조형성 연구. 복식, 54(2), pp. 17-18.
- 26) 앞의 논문, pp. 17-18.
- 27) 총 183점 중 문양이 나타나지 않은 동색무문형과 이색무문형, 주름형, 구슬장식주름형 등의 40점은 제외하였다.